

광주도심 순환 타원형...총연장 41.84km 3단계 공사

17년 돌고 돌아 8월 착공...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건설되나

오는 8월 착공 예정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은 타원형이다. 현재 1호선이 광주 동구 녹동역~상무역~평동역까지 직선형이라면, 앞으로 운행할 2호선은 광전동 종합버스터미널을 중심에 두고 타원형으로 건설된다.

2호선 건설 공사는 1~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총연장은 41.84km. 총사업비 2조 1761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3단계로 나뉘어 건설되는 만큼, 1단계씩 공사가 완료될 때마다 개별 개통한다.

1단계 구간은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까지다. 총 연장은 17km. 정거장 20곳과 차량기지 1곳이 들어선다. 건설 비용은 6700억원 가량이다. 6개 공구로 나누어 조달청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대로 착공식을 열고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공사가 완료되면 2023년 개통된다.

2단계 구간은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까지, 연장은 20km다. 정거장 18곳이 이 구간에 들어선다. 광주시는 내년에 2호선 2단계 구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2단계 구간 역시 공사 완료 목표 해의 이듬해인 2024년 개통 예정이다.

3단계 구간은 백운광장~효천역으로 연

단계별 완공때마다 개별 개통

광주시 지역업체 참여 독려

2024년 3단계 공사 완료편

광주 '30분 대중교통 시대'



도시철도 2호선 차량 디자인.

장은 4.84km이다. 정거장 6곳, 주차기지 1곳이 들어선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의는 지난 2002년 시작됐다. 필요성·경제성 등을 두고 수년간 건설 찬반 여론이 팽팽해 진척을 못 보다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등 후보자들이 건설 찬반 공론화를 받아들였고, 이 시장 취임 후 진행된 공론화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건설 찬성표가 나오면서 뒤늦게 속도를 냈다.

17년이나 돌고 돌아 올 8월 착공 예정이지만 그 효과와 의미는 작지 않다. 광주 시내를 원형으로 감싸고 운행할 도시철도 2호선 1~3단계 공사가 2022~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광주는 어느 곳이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30분이면 오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호선 착공을 앞두고 공사 진행에 따른 시민 협조를 거듭 부탁했다. 시내 곳곳에서 무려 6년간 건설 공사가 이어지게 돼 시민 불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호선 건설공사시 지역민 고용,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자재와 장비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부실 없는 안전한 공사를 위해 안전·품질·공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안전점검 활동을 추진한다. 시민불편 최소화화를 위해 교통대책 컨트롤타워인 교통처리 특별대책단을 구성, 교통혼잡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구축, 난공사 예상 구간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시 차원의 종합교통대책 등을 추진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거쳤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4만불 시대 열겠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헬스·비메모리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중점육성 정책’과 함께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온 제조업의 도약을 경제 발전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되고, ‘메이드 인 코리아’ (Made in Korea)로 축적된 경험·기술 토대 없이는 새로운 혁신의 싹도 자라나기 어렵다”며 “산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 산업생태계를 위협·파괴에서 도전·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 융복합이 좌우한다”며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견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19 국제 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정용 감독과 대회 최우수선수(MVP)에게 주는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 선수 등 대표팀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한국 남자축구 사상 FIFA 주관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대표팀이 우크라이나에 패한 뒤 SNS에 글을 올려 “멋지게 놀고 나온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선수단을 격려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내달 8일 전남 방문 광주전남연구원과 업무협약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역 싱크탱크인 광주전남연구원과 협업을 위해 다음달 8일 전남을 찾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 이후 첫 행보로 잇달아 지방을 찾고 있는 양 원장이 내년 총선 지원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양 원장은 오는 7월 8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연구원과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와 비공개 면담도 할 예정이다. 양 원장은 취임 이후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단체 산하 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앞서 양 원장은 이미 수도권 및 부산·경남을 돌며 협약을 체결했고, 다음달까지 전남·강원·대전

을 방문해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9일 충북연구원과 정책협약 체결 차 충북도청을 찾은 양 원장은 “노무현 정부 역점사업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은 과도기인 것 같다. 민주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균형 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어떤 명작보다 더 따뜻한 농부화가의 그림



김은영의
‘그림 생각’

(272) 해남

지난 주말 여고 친구들과 함께 해남 남도수목기행을 다녀왔다. 수운미술관·행촌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대흥사에서 템플 스테이, 일지암과 녹우당, 새금다정자 등으로 이어진 짝 차고 일한 1박2일 여정이었다. 무엇보다 삶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땅끝 마을 여러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감동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무림의 고수로 김순복 농부화가(1957~)를 뵈고 싶다. 화가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색채에 감동하

여 그림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2년 전 해남 행촌미술관에서 화가로 데뷔전시를 하였다. 소박하고 솔직한 그림으로 보는 이를 행복하게 하는 그의 전시는 벌써 일곱 번째 열리고 있다.

김작가의 ‘새참 먹고 낮잠’은 마늘 캐던 여성농부들이 점심으로 달디단 새참과 막걸리 한잔 마시고 불볕 가린 우산만 한 나무 밑 그늘에 누워 맛있는 낮잠을 자는 풍경이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모처럼 여유를 갖고 떠난 1박2일 남도기행이 부지런히 일한 후 즐기는 농부의 끝장처럼 느껴진 탓인지 세상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와 닿는다.

현재에도 여전히 2만 여 평의 땅에 단호박, 늪은 호박, 대파 농사를 지으면서 그림농사도 함께 하고 있는 김순복작가는 “농촌의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다 예쁘고 소중한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다”고 말하고 “우리 농부들이 모종 심을



김순복 작 ‘새참 먹고 낮잠’

때부터 누가 가지런히 잘 심나, 누구 발작물이 더 잘 자라나, 누가 더 많이 수확하나 경쟁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농사짓는 그 모든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덧붙인다.

“그림 그리는 할머니”가 소망이었던 엄마에게 딸이 선물한 76색 파버카스텔 수채화 색연필로 그림과 글을 그리면서 들려준 김순복작가의 삶이야기와 해남 농부 해남농사 그림은 그 어떤 대가의 저서와 명작보다 우리를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광주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은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은가를 꿈꾸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2019 여름휴가, 600년 광한루가 부른다

가자! 별이 쏟아지는 정령치 밤하늘, 남원으로

광한루 600년 기념주간 ·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8. 2 ~ 8. 6) (5. 18 ~ 9. 28) (7. 28 ~ 8. 15)

